



요약

사실

파티마에서 개최되는 도움이신 마리아 대회.

양성 여정

이름의 신비 :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나자렛. 하느님의 모든 가족

4. 마리아의 거룩한 이름.

겸손하고 가장 뛰어난 피조물

통합생태학의 스승이신 마리아와 함께 걷기

5. 하늘의 땅인 마리아.

가족의 연대기

- 필리핀 -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 살레시오 가족 담당자 모임.

- 파키스탄 - 라호르 살레시오 가족 피정.

- 2024년 파티마(포르투갈)에서 개최되는 도움이신 마리아 국제대회.

- 살레시오 가족: “시칠리아의 새로운 도전에 대한 공동의 꿈과 전략”.

월간 기도지향

세계 평화를 위해: 지금은 암흑기입니다.

사실

파티마에서 개최되는 도움이신 마리아 대회

사랑하는 아드마 회원 여러분,

파티마에서 2024년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제9회 도움이신 마리아 국제대회가 개최됩니다. 우리 아드마회가 추최하고 살레시오 모든 가족이 참여하는 이 대회는 ‘돈 보스코의 성모 신심’에 대해 알리고, 이를 심화하며, 확산함을 목표로 합니다.

살레시오 가족의 모든 그룹을 위해 열리는 국제 도움이신 마리아 대회는 살레시오 정신의 두 가지 카리스마적 측면인 성체와 도움이신 마리아 신심을 기념하는 대회입니다.

첫 번째 국제대회는 돈 보스코의 7대 후계자인 에지디오 비가노 신부에 의해 소집되었으며, 돈 보스코 서거 100주년이 되던 1988년에는, 토리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차례의 국제 대회가 더 열렸습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2019년 대회가 가장 최근에 개최된 대회입니다. 이 대회에서 제9회 국제 도움이신 마리아 대회는 ADMA 창립 150주년을 맞이하여, 마리아 성지이자 성지 순례지로 유명한, 파티마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제9회 국제 도움이신 마리아 대회의 주제는 “내가 너에게 스승을 주겠다”로, 2024년 200주년을 기념하게 되는 돈 보스코의 ‘아홉 살 때의 꿈’을 되새기게 합니다. 이 꿈에서 출발하여, 살레시오 가족 모두를 예수님께로 가는 길과

가장 도움이 필요한 젊은이들을 향해 걸어가는 길에서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어머니이시며 스승이신 마리아를 더욱 널리 알리는 것이 이 대회 목적입니다.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준비된 양성 일정은 ‘아홉 살 때의 꿈’을 심화하기 위한 것으로, 다섯 가지 주제와 열 가지 단계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꿈의 첫번째 주제는 당연히 오라토리오 사명입니다. 여기서는 교육적 카리스마와 성화의 길로서의 예방교육 시스템을 분석할 것입니다. (9월과 10월 아드마 온라인 참조).

두 번째 주제는 성소와 사명으로서의 삶의 신비, 즉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보다 더 위대한 것을 강조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 성소 식별, 영적 투쟁,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제로 다룰 것입니다. (11월과 12월 아드마 온라인 참조).

세 번째 주제는 만남과 선포, 회심과 믿음, 관상과 행동, 전례와 사도직이라는 주제를 포함하는 현존과 신비로서의 하느님 체험을 묵상하도록 초대됩니다.

네 번째 주제는 살레시오 카리스마의 스타일인 친절한 사랑입니다. 이 주제는 하느님의 자비에서 영감을 받은 사랑의 교육학, 즉 겸손과 온유, 자비와 친절을 특징으로 하는 관계적 스타일의 삶이 목표입니다.

마지막 주제는 모든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교회의 여성적이고 모성적인 모습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제9회 국제 도움이신 마리아 대회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등록은 개별적으로 하며, 대회 웹사이트 (<https://mariaauxiliadora2024.pt/en>) 에서 참가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과 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세계의 제단”이라고 하셨던 파티마, 좀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파티마 묵주기도의 성모 성지는 포르투갈의 영적 중심지입니다. 1917년 5월부터 10월까지 성모님께서는, 순박하고 가난한 양치기 소년 프란시스코와 자친타 마르토 형제, 그리고 그들의 사촌 루시아 도스 산토스에게 이곳에서 여섯 차례 발현하셨습니다. 파티마의 묵주기도의 성모 성지는 1917년 10월 13일 발현 당시 성모님께서 “나는 묵주기도의 성모이니 나를 기리기 위해 이곳에 성당을 지어라”라는



요청에 응답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1919년 코바 다 이리아의 성모 발현 장소에 작은 성당이 세워졌고, 그 후 많은 순례객의 방문에 따라 오늘날의 성모 발현 성당이 건립되었습니다.

우리는 살레시오 가족 전체와 친교를 나누며 이 여정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돈 보스코 대축일 준비 9일기도가 되기를 바라며, 파티마에서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아드마 프리마리아 회장, 레나토 발레라
아드마 프리마리아 영적활성자, 알렉산드로 구에바라**

양성 여정

이름의 신비 :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1. 아홉 살 아이의 꿈속의 이름

아홉 살 아이의 꿈에서 ‘이름’을 주제로 보면, 무엇보다도 먼저 어린 요한이 눈이 부셔서 바라볼 수 없을 만큼 빛나는 얼굴을 가진 남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상한 흰 옷을 입은 남자는 웃고 모독하는 아이들과 어린 요한 사이의 격렬한 싸움을 종식시킵니다. 신비스러운 인물은 요한의 이름을 부르며 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기본적인 부르심으로, 하느님께서 이름을 부르실 때는 항상 사명을 맡기십니다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마리아, 베드로, 사울...). 이는 이름을 처음 부를 때, 그 이름에 대한 주도권이 하느님께 있음을 나타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빛과 빛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다”. 하느님께서서는 요한 보스코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에게 예방교육 시스템을 가리키십니다. “주먹다짐으로 하지 말고 온유와 사랑으로 이들을 네 친구로 만들어야 한다.”. 요한 보스코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말하자, 그의 이름을 알아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런 식으로 제게 말씀하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라고 두 번이나 묻는다.

인간은 깨닫기 위해, 스스로 자문하고, 실제로 질문도 하면서, 그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어린 요한도 그랬습니다. 그는 작지만 민첩하고 영리했으므로, 자신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질문을 하는 신비한 인물이 누구인지 이해하려고 합니다. ‘나는 네 어머니가 하루에 세 번 인사드리라고 가르쳐 준 분의 아들이란다’라는 빛나는 분의 답변에는 거룩한 교육법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의 이름에 대한 지식은 마리아의 모성적 중재를 통해 요한 보스코와 살레시오 영성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는 응답이 필요했듯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분과 친교를 나누기 위해, 어머니 마리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당시 모든 농민들은 하루에 세 번 바치는 삼종 기도를 통해 성모님을 만났습니다. 신비로운 그분은 “나의 이름은 내 어머니에게 물어보라”고 하며 사라집니다. 돈 보스코의 생애에서 실제로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는 자신의 성소를 깨닫기 위해 키에리의 은총의 성모님 앞에서 기도했으며, 성모님께서 거룩한 순교자들인 아벤토레, 오타비오 성인의 순교 장소를 가리키며, 그곳에 신자들의 도움이신 마리아 성당이 세워지도록 한 것, 1887년 5월 16

일 예수성심대성당의 도움이신 마리아 제단 위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제서야 꿈을 이해했다고 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그 이름 뒤에 숨겨진 신비를 깨닫는 것은, 일생에 한 번 일어나는 일회성 작업이 아니라, 시작이 된 후, 평생 지속되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모습을 갖추실 때까지 계속되는 과정의 결실입니다(갈라 4,19).

2. 성경에 나오는 이름

성경에서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사람의 특징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아담은 여성을 ‘여자’라 부릅니다). 셈족 세계에서 이름은 사물의 현실 그 자체이며, 이름에 대한 지식은 본질과 에너지가 알려진 존재에 대한 일종의 힘



의미합니다. 하느님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신 유명한 구절은 출애굽기 3장에 나오며, 하느님은 명사가 아닌 동사(hjh, ‘되다, 되다, 계속되다’)로 계시됩니다. 따라서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신성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테트라그라마톤(JHWH)이 나옵니다. 실제로 탈출 3,14의 본문은 신성한 이름에 대한 정의와 계시라기보다 계시에 대한 부정을 담고 있습니다. “나는 있는 나다”라는 말은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서 신학이 표현하고자 했던 하느님의 영원성(“항상 계신 분”)과 진실성(“항상 진실하신 분”), 신성에 대한 정의라기보다 표현할 수 없는 하느님의 본질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나는’이라는 호칭이 공허하지 않은 까닭은 하느님께서 구원자로서 자신을 드러내신 출애굽의 역사를 떠오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르틴 부버가 말한 것처럼, ‘나는 있는 자다, 나는 앞으로도 있을 것이며... 언제나 있을 것이다’.

3. 모세 이야기(탈출 3,1~10, 사도 7,30, 31)

모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놀라운 것입니다.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던 중 멀리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았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비록 그의 나이 80세였지만, 어떤 놀라운 것들 안에서 경이로움을 발견하고, 새로운 것들에 대해 관심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불이 난 것 같으니, 불이 번지면 양들에게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러니 우리가 양떼를 멀리 데려가자’고 말할 수도 있었고, ‘초자연적인 것이 있는 것 같으니, 그 일에 끼여들지 않는 것이 좋겠다. 우리가 떠나면 열정적인 젊은이들이 그것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나는 이미 많은 경험을 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놀라웠으며’, 무언가 새로운 것이 있음을 깨달았고, 어린이처럼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며, 알고자 합니다.

모세는 그 광경을 보고 놀라, 신경 쓰지 않으려고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보러 가는”이라고 했는데, 이는 굉장한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보는”이라는 말은, 실제로 누스(카타노에사이), 마음을 보고, 생각하고, 성찰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가 정화를 통해 얻은 정신의 자유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낙담하고 체념한 사람이었다면 ‘이상한 일이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비록 나이가 들어 연로한 사람이었지만, 깨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혼잣말로, ‘내가 가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아야겠다. 저 떨기가 왜 타버리지 않을까?’(탈출 3,3)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어 본문으로는, 기름을 부었을까? “어떻게?”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모든 것을 체계화해서 이미 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막에는 서로 다른 고원들이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고원이 있으며, 종종 더 높은 고원에 가기 위해서는 길게 돌아서 올라가야 합니다. 모세는 양떼와 함께 낮은 고원에 있었는데, 더 높은 고원의 떨기를 보고, “내가 위에 올라가서, 그게 어떻게 된 일인지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는 위험에 처한

양떼를 떠나 햇볕을 받으며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가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아야겠다. 저 떨기가 왜 타버리지 않을까?”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의 영혼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나는 가난한 사람이고 실패자지만 하느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으며, 나는 그것에 관심이 있고, 그 일을 이해하고 싶고, 왜 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40년 동안 스스로에게 던졌던 커다란 질문이 다시 떠오릅니다. “그런데 왜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이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당신 백성을 사랑하신다면 왜 나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셨을까? 왜 내가 그들을 위해 마련한 기회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셨을까?”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같고 닮고 닮은 이 ‘왜’라는 질문은 마음 깊숙이 모세 안에 있던 어떤 것, 결코 잠들 수 없는, 보다 자유롭고 단순하게 그를 무엇보다 정확시켰던 그의 열정을 일깨웠습니다. 모세는 새로운 개인적 성공을 위해 산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마주하고 싶기 때문에 산에 갑니다.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탈출기 3, 4~6.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보러 오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떨기 한가운데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아무도 없는 사막에서 자신의 이름을 들었을 때 모세가 느꼈을 공포와 놀라움의 충격을 상상해 보십시오. 모세는 자신을 버림받은 사람, 실패한 사람, 버려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사막 한가운데서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완전히 무시당했다고 생각했었던 곳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도 겪었던 폭력적인 경험일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모세, 모세’라고 자신의 이름을 두 번이나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모세는 그때 자기 인생에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고 느낍니다. 처음처럼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진정으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야 하는 순간, 두려움에 가득 차서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라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생각해 보지도 못한 말을 듣게 됩니다.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기 위해 그토록 열정을 다해 자신을 투신한 사람이, ‘네가 어려움마저 피하지 않고 와주어 고맙다’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기뻐할 텐데, 오히려 ‘이리가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모세는 모든 열정을 다해 똑같은 일, 즉 불타는 떨기나무 현상을 하느님의 관점에서, 역사 속에 내재하시는 하느님의 현존으로 보려고 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이리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는 너의 생각으로 나를 정형화하기 위해 나에게 오면 안된다. 네가 가진 생각으로 너는 나를 이해할 수 없으며, 네가 나의 계획 안으로 들어와야 가능하다.” 그리고 모세는 들었다. “이리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말을 들은 모세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가 거룩한 땅이라고요? 이 저주받은 사막, 자칼이 있고 황량하고 척박한 곳, 도적들만 오기를 좋아하는 곳, 선량한 사람들이 살수 없는 이곳이 거룩한 땅이라고요? 내가 버림받고, 비참하고,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이 사막, 이곳이 거룩하다고요? 이곳이 하느님께서 현존하시는 곳이라고요? 이곳이 하느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곳이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시점에서 모세는 거룩한 계획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애씁니다. 그가 그곳에 간 것은, 하느님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만 거룩하고 정화된 장소를 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모세가 찾은 것은 하느님이었습니다. 모세가 발견한 그 장소는, 비참하고 버림받은 곳이었으며, 희망도 없고, 함부로 말들을 하는 곳이었지만, 그곳은 거룩한 땅이며, 하느님께서 현존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낸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처럼 관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자기 관점의 변화, 진정한 회심, 새로운 방법으로 하느님을 알아 뵈게 되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모세에게 하느님은, 혁명을 일으키거나, 자신의 특권을 희생하며, 형제들을 위해 자신을 투신하고 소모해야 하는, 그러기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할 것이 많음을 느끼게 해주는 분이셨습니다. 이제 모세는 하느님은 다르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하느님을 자신을 어느 정도 착취하다가 버리시는 분, 다른 사람들, 파라오 보다도 더 까다로운 주인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는 하느님께서서는 그의 백성들로부터 잊혀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자비와 사랑의 하느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계속해서 더 많은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 아버지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악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탈출 3,6).” 그러자 모세는 자신이 하느님에 대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지금까지 알았던 하느님과 다른 새로운 하느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그에게 ‘나는 네 조상들의 하느님이다. 네가 나를 알았다면, 내가 아브라함, 이사, 야곱의 하느님과 같은 하느님이며, 그들에게도 똑같이 행동했음을 깨달았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버림받은 자, 절망하고 실패한 자를 돌보시는 하느님이십니다. 7절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작업 감독들 때문에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정녕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하여, 그 땅에서 저 좋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스라엘 자손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나에게 다다랐다. 나는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억누르는 모습도 보았다.”> 모든 것을 1인칭으로 말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 보면, <나는 보았다, 들었다, 알고 있다, 내려왔다 등등...>이며, 모세에 대해 말할 때도 그렇다. “너, 모세는, 네가 학식이 많고 인간에 대해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네 형제들을 이해하며 그들의 비참함을 안다고 생각하겠지만, 네가 그들을 이해하고 있으므로 나에게 그들을 이해해 달라고 간청할 사람이 너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그들을 먼저 이해한 것도 나이고,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도 나이며, 그것을 보고 듣고 있는 것은 나다. 너, 모세는, 자유의 아름다움을 네가 처음으로 발견했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누리기를 바랬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네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일에 죽기까지 네 몸을 던졌다. 이제 너는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안다. 정말 너에게 백성에 대한 연민이 있었다면 그것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고, 너에게 자유가 있었다면 그것도 나에게서 나온 것이며, 너에게 호기심이 있었다면 그것도 나에게서 나온 것이다.

4. 발걸음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유대인의 유월절 저녁 식사(하가다) 예식에서 유월절 밤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몇몇 소년들은 실증을 냅니다. 한 명은 즐기고, 한 명은 “그런데 이 이집트 이야기가 뭐가 재미있다고 그래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아이는 “왜 우리는 이 절기를 지켜야 하고, 이 절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라고 질문합니다. 이것이 모세와 어린 요한 보스코의 태도입니다. “어떻게 된 거죠?” “당신의 이름은 어떻게 되죠?” 훌륭한 교육자는 답을 줄 뿐 아니라 질문을 유도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교육적 자세를 위해 다음의 교육적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경탄하기 (그리스어로 타우마제인), 기억하기 (히브리어로 자카르).



나자렛. 하느님의 모든 가족

4. 마리아의 거룩한 이름

1683년 교황 인노센트 11세가 마리아의 거룩한 이름을 기념할 것을 선포한 후, 가톨릭 교회는 9월 12일에 이를 경축하며, 지금은 온 교회에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축일은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고, 전구를 청하며, 칭송하면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인지 상기시켜 줍니다.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성부의 걸작을 떠올리는 것이고, 성자의 희생의 첫 열매를 드높이는 것이며, 가장 아름다운 성령의 궁전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느님의 영광을 가장 투명하게 반영** 하는 이름이며, 창조의 가장 고귀한 정점, 모든 여성 가운데 복되신 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머니로 주신 그분의 어머니를 떠오르게 하는 이름입니다. 성모님 거룩한 이름을 기념하는 미사 경문처럼, 효심 어린 마음으로 성모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신자는 ‘그분의 이름의 힘과 감미로움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름은 교화시키고 정화시키는 이름입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분의 이름이며, 깨끗함과 순결, 섬세함과 아름다움, 정직함과 거룩함을 불러일으키는 이름이며, 침묵과 묵상 뿐 아니라 친밀감과 사랑의 친교를 가르쳐주는 이름입니다. 성모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느님의 영역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장 귀통의 말처럼, 성당의 이름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따서 짓는 것이 그 안에 현존하시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처럼. “ 가톨릭 교회 안에서 성모님의 역할은 마치 공기처럼, 영향을 미치면서, 보이지 않지만 창조적인 에너지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마리아의 이름은 분열시키지 않고 하나로 일치시킵니다. 여성으로서 마리아는 하늘과 땅을 하나가 되게 하신 하느님의 어머니이며, 교회의 어머니,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로서, 받아들이고, 모아 들이고, 하나가 되게 하는 길을 제공하기에, 모든 종교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존경받습니다. 성모님의 이러한 모성성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누구보다 먼저 마리아에게 대화와 환대의 마음을 주셨으므로, 가족 안에, 국가 사이에, 종교 간의 그 많은 분열 가운데, 마리아 없이 영적 영향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달디단 이름

예수님의 귀에 가장 감미롭게 울려 퍼진 이름은 마리아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입으로 마리아를 다정하게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나자렛에서 어린이 예수는, 마리아에게 ‘엄마’라고 부르는 법을 배웁니다.

이 시기에 엄마는 부정되거나 대리 되어서는 안되며, **엄마가 없으면 모든 어린이에게는 중요한 실패와 희망의 결핍이 존재하게 되며,** 삶의 모든 행동과 삶의 모든 계절에 고통스럽게 동반되는 우유부단함과 절망의 배경이 된다는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신 엄마가 많이 안아주고 사랑을 주며, 바라봐 주고, 이름을 불러주었다는 느낌은, 자신의 개성과 독창성의 근원적 체험이 되며, 자신과 타인, 하느님에 대한 모든 신뢰를 키우는 자양분이 됩니다.

엄마를 부를 수 있고, 그녀의 경청과 관심, 사랑과 보살핌을 “**익명이 아닌 것임**”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은, **그를 진정으로 인간적이며, 개별적이고, 비연속적인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근본적인 자산이 된다.** 몽폴의 성 루도비코가 말했듯이, 마리아는 하느님의 낙원이었고, 하느님과 함께 낙원에 있으며, 낙원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희망의 모성적 각인은 매우 결정적이어서 하느님의 아드님도 인성을 지닌 우리와 똑같은 경험, 마리아를 ‘엄마’라고 부르며, 그 이름에서 **지상에서 가장 달콤한 현실,**



무엇보다도 하늘에 계신 하느님의 부성애를 떠오르게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와의 친밀한 일치로 마리아를 어머니로 느끼며 다정하게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이 쉽고 자연스럽습니다. 하느님의 부성애와 마리아의 모성애는 하느님의 섭리적 계획에 밀접하게 속해 있습니다. 몽폴은 이를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설명합니다. “자연적이고 육신적인 면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것처럼,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면에도 하느님이신 아버지와 어머니 마리아가 계십니다.** 모든 참되고 예정된 하느님의 자녀들은 하느님을 아버지로,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고 있으며,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습니다”(참된 신심에 관한 논문, 30). 이것은 이미 성 키프리아누스가 하느님의 부성애와 교회의 모성애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말하면서,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고 표현한 것과 같습니다.

빛나는 별 마리아

예수님께서 사셨던 나자렛 가정에서의 체험은 그분이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분은 그 체험을 우리도 모두 하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분은 마리아의 모성애 없이는 많은 시련이 있는 우리의 영적 삶이 결코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성 버나드가 “별을 바라보며 마리아를 찬미하라”고 노래한 것은, 마리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느님의 선물인 확실한 신학적 미덕과 우리 안의 장애물, 죄에 대한 성찰, 세상의 혼란과 두려움, 마음의 당혹함과 혼란에 직면하여, 길을 잃지 않기 위해, 확실한 지원이 필요하고, 그분이 최대한의 지지를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의 이름으로 희망을 되찾고, 자신감을 회복하며, 낙심함을 극복하고,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모님을 따르면 길을 잃지 않고, 성모님께 기도하면 절망하지 않는다.”고 성 버나드는 말합니다. “성모님께 생각을 돌리면 실수하지 않고, 성모님께서 붙잡아주시면 넘어지지 않고, 성모님께서 보호해주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고, 성모님께서 인도해주시면 지치지 않습니다. 성모님께서 자애를 베푸시면, 확실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바오로 6세가 말했듯이, 성모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구원과 기쁨을 위해 우리를 떠나심으로, 이보다 더 아름다운 선물은 없으며, 이를 거절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교회는 올바른 전례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신자들의 입을 통해 마리아의 이름도 울려 퍼질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신자들은 마리아를 빛나는 별처럼 바라보고, 그녀를 어머니로 부르며, 위험에 처했을 때 확실한 피난처로 그녀에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성모 마리아의 거룩한 이름 교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고, 저항과 망설임, 자존심과 인간 존중, 문화적 유행과 신학적 이의 제기를 극복하고, ‘어머니’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필요가 있을 때면 언제든지 마리아를 부르고, 마리아를 통해 성령께 간청하고, 어머니 품에서 피난처를 찾는 어린아이처럼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으로 모든 은총을 구해야겠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몽폴의 뒤를 이어 돈 보스코와 같은 수많은 성인들이, 마리아의 예수님에 대한 “모성적 권한”은 하늘나라에서도 계속되고 확장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신뢰를 가지고 성모님께 전구를 청하는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몽폴은 성 베르나르도, 성 베르나르디노, 성 보나벤투라의 가르침을 언급하면서 하느님의 초월성과 성자의 우월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성모님의 모성적 기능이 성모님께 비할 데 없는 전구를 통하여, 정서적인 모성적-자녀적 측면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정확하게 설명한다. 용기 있게 자기 의견을 표현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과 하느님 스스로 마리아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마리아의 힘이 너무 커서, 마치 그녀가 하느님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겠지만, 크신 왕께서는 항상 겸손하게, 그분 곁에서 드리는 어머니의 기도와 간청을 듣고, 그분의 뜻을 따르시기 때문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논문, 27).



겸손하고 가장 뛰어난 피조물 - 통합생태학의 스승이신 마리아와 함께 걷기

5. 하늘의 땅인 마리아

교황께서 성모님에게서 배워 세상을 “**지혜로운 눈으로 바라보라**”고 권유하심은, 창조의 요소들에게서 하느님 사랑의 흔적을 발견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사랑에 응답하라는 그분의 부르심을 인식함을 의미합니다. 땅은 물과 함께 인간의 생존과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지구는 우리 발 밑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쉽게 잊혀져 그 중요성과 가치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기후 위기의 여러 징후들 속에서, 현명한 사람들은, 지구의 외침과 자유와 존엄한 것들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재화에 접근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외침을 인식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거주하고 경작할 땅이, 조상들의 삶과 죽음이, 그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계속될 수 있음은, 하느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계약의 두 가지 얼굴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땅의 상징적인 의미와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땅은 구체적인 생계 수단이며 거주지, 상징적인 의미 뿐만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이 하느님 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 창조 이야기는 우주의 탄생을 하느님의 태에서(창 1장) 태어남을 묘사하고 있다면, 두 번째 창조 이야기는 하느님께서 흙으로 첫 인간을 빚는 웅기장으로 묘사하며, 인간을 정원을 돌보고 가꾸며 살아가는 농부로 보여줍니다.

물론 이야기의 장르는 역사적이지 않고 상징적입니다. 많은 고대 문화권에서 인간의 창조는 모든 생명체가 생명과 영양을 공급받는 위대한 어머니로 인식되는 지구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성서는 가난한 땅에 널리 퍼져 있던 이 신화를 바꾸고 변형시켰습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땅을 신적인 여성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땅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느님께서 인간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신 요소로 표현됩니다.

성서에서는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유일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하늘과 땅, 식물과 동물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창조되었다고 합니다(창 1,26~28). 모든 피조물은 남자와 여자가 없이도 생존할 수 있지만, 하느님이 직접 동산의 관리를 맡기신 남자와 여자는, 집과

음식, 일을 찾기 위해, 다른 자연적 요소의 도움 없이 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지상에서의 인간의 삶은 체험을 통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예레 18,2~6 참조). 역사는 무대에서, 다른 피조물들과 함께,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자신의 나약함과 불완전함을 경험하다가, 결국은 자신을 낳아준 자궁이며 근원인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의 신비를 만나게 됩니다. 땅(지혜 9,13~18).

코린토인들에게 보낸 첫번째 편지에서 성 바오로는, 아담의 창조 이야기를 회상하며, 첫 인간 아담은 흙에서 왔지만, 참 아담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확언합니다(1코린 15, 45~49). 첫 아담의 후손인 우리 역시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참 아담이신 부활하신 분의 영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하늘에 속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죽음을 결정적인 패배가 아닌 과정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묻힐 땅은 그리스도의 무덤처럼 우리를 위한 자궁이 될 것이며, 우리는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 하느님 안에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성 바오로의 논리를 따라가며, 교회의 교부들은, 성령으로부터 당신의 아들 예수에게 새로운 인간성을 형성하실 때, 창세기의 아직 경작되지 않은 처녀인 땅을 마리아를 비유합니다(루카 1,35).

마리아는 첫 번째 하와가 거절함으로써 깨어진 인간과의 친교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하느님께 열어 드리는 새 하와입니다. 마리아의 몸과 마음은 하늘의 땅,



하느님께서 거하시는 연약하고 겸손한 곳입니다.

마리아의 환대의 자세는, 당신 아드님을 잉태하는 순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하느님의 아들이 두 발로 이 땅을 걷도록, 육화를 위해 봉헌하였듯이, 작지만 구체적인 행동들을 통해 매순간 자신의 피앗을 새롭게 했습니다. 사실 마리아는 그리스도께 육신을 주는 것뿐 아니라, 충만한 인간이 되기 위해 기다리는 그의 숨은 삶의 긴 여정 동안 그를 동반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보살핌과 관심, 교육적 지혜가 필요한 발걸음입니다(루카 2,41~52). 설교하실 때, 예수님은 농촌에서의 생활과 농사에 관한 이미지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마태 6,25~34). 그분은 사물을 잘 관찰하셨으며, 자신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비유를 통해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일상생활 속에서 지혜롭게,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의 표징들을 발견하고 알아차릴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아마도 어린시절에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채소밭이나 작은 밭을 가꾸는 일을 도와주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예술가 가족들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을 직접 경작할 수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성장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는 주로 세 가지 종류가 등장합니다. 농부와 씨앗, 땅(마르 4,1~32)입니다. 씨앗은

하느님의 선물, 즉 그분의 말씀, 은혜, 하느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는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냅니다. 씨앗에는 싹이 트고 열매를 맺는 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땅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많은 열매를 맺도록 창조하신 인간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이 아닙니다! 열매 맺음은 그리스도인 성소의 핵심입니다(요한 15.16)! 마지막으로 농부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하느님의 협력자들을 나타내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일은 모든 시대에 걸쳐 제자들과 함께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씨앗의 수명을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땅을 돌보면서 가능한 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생태적 회심으로 걷는다는 것은, 좋은 농부처럼 땅과 씨앗을 돌보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느님께서 피조물 모두에게 주신 선물인, 존중받으면서 가치 있음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선물을 공유하고, 연대와 보편적 형제애 안에서 성장하는 방법을 아는 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부족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공동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께서 이 긴 여정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의 연대기

필리핀 -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 살레시오 가족 담당자 모임

필리핀 남부 “신자들의 도움이신 마리아” 관구(FIS) 라완 “돈 보스코” 피정센터에서는 동아시아 오세아니아의 두 가지 중요한 지역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행사는 4일 동안 진행되었으며, 수도회 총괄업무담당자들과 로마뿐만 아니라 지역 내 15개국의 65명의 대표자들이 모였습니다.

이 두 모임에는, 세계청소년사목대리인 Miguel Angel Garcia-Morcuende 신부 SDB, 청소년 사목협력자 Joebeth Vivo 신부 SDB, 살레시오 가족 총사무국 대리 Joan Lluís Playà 신부 SDB, 도움이신 마리아회 세계영적활성자 Alejandro Guevara 신부 SDB, 동문회와 살레시오협력자회 총대리 Domenico Duc Nam Nguyen 수사 SDB, 도움이신 마리아의 딸 수녀회(FMA) 살레시오



가족 담당 총평의원 Leslye Sandigo 수녀, 도움이신 마리아의 딸 수녀회(FMA) 살레시오 협력자회 세계 담당 Lucrecia Uribe 수녀가 참석했다.

라완에서 진행된 이 모임에서는 청소년 사목을 위해 살레시오 가족의 다양한 그룹과의 협력과 조정을 강화하고 젊은이들과 함께 일하는 카리스마를 강화함이 목적이었다.

파키스탄 - 라호르 살레시오 가족 피정

파키스탄은 살레시오 그룹이 아직 적은 수이기에, 살레시오 가족 피정과 같이 아주 평범한 일도 특별한 것이 된다. 11월 11일 토요일, 처음으로 라호르 살레시오 가족이 모두 (동문회, 아드마, 살레시오 협력자)이 피정에 참석했다. 2023년 Strenna를 묵상한 후, 참가자들은 성체조배와 개인성찰을 했다. 그리고 기숙학교의 소년들과 함께 묵주기도를 바친 후 거룩한 미사를 봉헌했다. 저녁에는 식사와 함께 총동문회장인 다니엘 씨가 세계 총동문회장이 Jaranwala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이라는 감동적인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라호르 동문들이 제안한 이 계획은 라호르에서 100km 떨어진 도시 Jaranwala의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대한 연대를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교 홍보와 기술



교육을 위한 장학회 설립과 22개의 장학금이 포함되어 있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육과 연대를 증진하기 위한 살레시오 가족의 헌신을 보여줍니다.

도움이신 마리아 국제대회, 2024년 파티마(포르투갈).

상호 연대의 정신으로, 가장 어려움에 처한 그룹의 참여하도록 돕기 위해 “연대 기금”이 토리노 프리마리아에 설립되었다.

받은 금액은 다양한 필요에 따라 쓰여지게 되며, 참가자 개인에 대한 별도의 요구는 없다.

모든 기부금은 ADMA 은행계좌로 송금

- (IBAN IT16 V030 6909 6061 0000 0130 575)

- 하거나 다음 링크

<https://www.admadonbosco.org/>의 지침을 따라 보낼 수 있다.

기부를 위해서, 또 기부에 따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그룹 대표는 다음의 주소로 편지를 보내 문의할 수 있다: adma@admadonbosco.org

“주님께서서는 기쁨으로 섬기는 자를 사랑하신다.”



내가 · 너에게
스승을 · 주겠다

도움이신 마리아 제9차 대회

파티마 2024년 8월 29일 - 9월 1일

등록이 시작됩니다

www.mariaauxiliadora2024.pt

살레시오 가족: “시칠리아의 새로운 도전에 대한 공동의 꿈과 전략”

(ANS - 팔레르모) - 시칠리아 살레시오 가족 모임이 11월 25일 토요일(9:30-17:30) 팔레르모 “청년 예수” 살레시오 회관에서 “시칠리아의 새로운 도전을 위한 꿈과 공동전략”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살레시오 가족의 미래를 위해 양성과정이 더 향상되는 것이 이 모임의 목적이었습니다. “무엇이 이 시대의 도전입니까?” - 시칠리아 살레시오 관구장 요한 안드레아 신부는 말합니다. - 급변하는 이 시대에 단순한 방관자에 머무르지 않고,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전략과 방법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습니까? 젊은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빈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어떤 새로운 방법을 고안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꿈쟁이 돈 보스코의 자녀들인 우리의 꿈입니다. 토요일에 시칠리아 살레시오 가족들은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칠리아 살레시오 가족으로서 사람들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고 깨어 있기 위해, 모든 사람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성찰했습니다.

모임의 강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레리오 바르토라나 : 관리자이자 언론인, 돈 보스코 총동문회 회장, 잡지 “보치 프라테르네(Voci Fraterne)” 이사, “시칠리아 살레시오 가족의 새로운 도전”에 관해 강의.
 - 살보와 린다 아다모 : 메타코메타 회원, “위탁 가족 연대 가족”에 관해 강의.
 - 아고스티노 셀라 : 돈 보스코 2000 협회 회장, “이주민들과의 연대의 방법”에 관해 강의.
 - 도니 사피엔자 : 사회적 협동조합 “첸트로 오리존테 라보로” 부회장,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한 서비스와 기회”에 관해 강의.
- 토론은 살레시오 협력자 마시모 멜로디아(Massimo Melodia)의 사회로 진행. 그는 아내 주세피나와 함께 살레시오 가족 모임의 코디네이터입니다.

모임에 참석하는 참가자는 시칠리아 살레시오 가족협의회 회원, 각 그룹의 지역협의회 회원, 시의회 회원, 시칠리아 살레시오 공동체 원장, 살레시오 청소년 운동 에킵, 살레시오 가족 대표와 보조자들입니다. 시칠리아의 도움이신 마리아의 딸 수녀회(FMA) 안젤라 마리아 마치오니 관구장 수녀도 참석하였습니다.

이 모임에는 돈보스코 동문회, 도움이신 마리아의 딸



수녀회, 돈보스코 살레시오회, 도움이신 마리아회, 살레시오 협력자회, 돈보스코 재속회, 돈보스코 남자재속회, 성가정사도회(ASF), 성심 살레시오봉헌회(SOSC), 제자들회, 살레시오 가족운동, 살레시오 청년운동 등 시칠리아 살레시오 가족의 다양한 그룹원 180 명이 참여했습니다.

모임의 기획자는 시칠리아 살레시오회 프랑코 디 나탈레 신부, 아순타 디 로사 수녀(FMA), 스테파노 카르피노, 카롤리나 피오리카, 아르날도 리지 신부, 마시모 멜로디아입니다.

월간 기도지향

우리는 특별한 지향을 위해 전 세계 모든 Adma 그룹이 함께 이 기도를 바치기를 원합니다.

이번 제나이오(gennaio)의 달에는 프란체스코 교황의 가석방으로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은 어둠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어둠의 때입니다, 어머니. 이 어둠의 때에 저희는 당신의 빛나는 눈에 우리 자신을 담고, 저희의 문제를 예사롭지 않게 받아들이시는,당신의 마음에 저희 자신을 의탁하나이다.

어머니, 저희는 혼자서는 할 수 없나이다. 당신 아들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당신은 우리를 우리의 평화이신 예수님께로 다시 데려가시오니, 주님의 자비를 드러내시는 당신은, 우리를 그분 위로의



증인으로 삼으십니다.

어머니, 평화의 모후시여, 하느님의 조화로움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소서.

아멘.

기사와 사진 보내기

여러분이 수행하는 양성 모임, 도움이신 마리아 24일 기념, 봉사활동의 기사와 사진 제목과/또는 간단한 설명과 함께 기사(.doc 형식, 최대 1200자 공간 계산하지 않음)와 최대 2장의 사진을(jpg디지털 형식 및 너비 1000px 이상의 크기)

adma@admadonbosco.org 로 보냅니다. 이메일 “가족 연대기”의 제목과 텍스트에 저자의 자료를 표시하는 것 (이름, 성, 촬영 장소, 소속 Adma, 도시, 국가)은 필수적입니다.

보냄으로써, ADMA는 항상 저자의 이름을 인용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기사와 사진을 처리하고, 출판하고, 부분적으로라도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자동으로 부여 받습니다. 이미지는 편집진의 재량에 따라, <https://www.admadonbosco.org> 사이트 및/또는 다른 ADMA 출판물에 제목과 저자의 이름과 함께 발행될 수 있습니다.